

전남 동계체전 쇼트트랙 사상 첫 메달

여초 2000m 릴레이 박신혜·유채리·서하늘·장예은 동메달

광주 박영주·최수민·박경인·김민진 스키 크로스컨트리 동

전남도가 동계체전 빙상 쇼트트랙 종목에서 첫 메달을 땀다. 광주시도 여자 일반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동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울산과학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빙상 쇼트트랙 여초부 2000m 릴레이에서 3분35초 547의 기록으로 박신혜(광양 덕례초5), 유채리(〃 칠성초4), 서하늘(〃 칠성초6), 장예은(〃 백운초3)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 일반 15km 계주에서 광주스키협회 박영주·최수민·박경인·김민진이 1시간37분37초9의 기록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메달은 전남도가 동계체전 빙상 쇼트트랙 종목에서 처음으로 딴

것이라 의미가 크다.

전남 빙상 관련 선수층은 일반부터 초등에 이르기까지 23명으로, 역사도 4년여에 불과하다.

지난 2007년 전남도 빙상연맹 박부영 회장이 사재를 털어 광양에 빙상장을 건립한 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쇼트트랙 등 빙상선수 육성에 나섰다. 아이스하키 유소년팀과 일반팀도 창단했다.

이번 동계체전에는 쇼트트랙 11명, 피겨 2명 등 총 15명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지난 2009년 쇼트트랙에 입문해 4년 여간 훈련을 거듭한 결과 값진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클래식 3km 종목에서 은메달을, 14일 열린 스키 크로스



지난 15일 빙상 쇼트트랙 2000m 릴레이에서 동메달을 딴 박신혜, 서하늘, 유채리, 장예은(왼쪽 2번째부터).

컨트리 6k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전남도 빙상연맹 박종화 전무는 “빙상 불모지인 전남에서 딴 첫 메달로 전남빙상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메달을 기점으로 선수들이 분발해 전남빙상이 한단계 도약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경기에서 신안군청 조인희·김서라가 바이애슬론 7.5km 스피린트와 개인경기 15km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22.9 X 15.9 cm

동계체전 전남 출발 ‘굿’

사전경기서 은2·동1개, 광주 동1개... 18일 개막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 결과 전남은 은 2개, 동 1개로 종합점수 193.5점을 획득해 8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동 1개를 따내며 종합점수 173점으로 9위를 달리고 있다.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울산·강원·충남·전북 등지에서 개최되는 본 대회를 앞두고 열린 사전대회에서 전남은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은 2개를 획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정현주(화순초6)는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3km 초등부에 출전해 10분39초9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다음날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6km 계주에서 유나영·임가을과 함께 조를 이뤄

은메달을 따내 2관왕이 됐다.

장예은(광양백운초3)·유채리(광양칠성초4)·박신혜(광양덕례초5)·서하늘(광양칠성초6)은 15일 울산과학대 아산체육관 빙상장에서 열린 빙상쇼트트랙 여초초등부 2000m 릴레이에서 3분35초547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93회 동계체전에서 종합 7위(종합점수 291점·금4 은3 동3)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종합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체전서 30점을 획득한 아이스하키팀이 선수구성이 되지 않아 이번 체전에 불참했고, 지난해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에서 금3·은메달 1개를 딴 국가대표 문지희가 올해는 국가대표급 우수선수 종목 중복 불출전으로 대회에 나서지 못했기 때



정현주·임가을·유나영(왼쪽부터)이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3km 초등부에 출전해 10분39초9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딴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문이다.

광주는 지난 14일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 15km 계주에 출전한 최수민·박영주·박경인(광주스키협회)이 1시간37분37초9의 기록으로 이번 체전 첫 동메달을 따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빙상 쇼트트랙 남자 대학부의 박준석·

오병택(호남대)·명지훈·유태웅(조선대)과 여자 일반부 오현숙·최순영·지송희·김요순·나은화(광주빙상연맹)는 지난 14일 울산과학대 아산체육관 빙상장에서 열린 3000m 릴레이 경기에서 각각 4위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최동환 기자 dhchoi@jinbo.com

26.6 X 12.3 cm